

여야 '통신비 2만원 지급' 난타전



‘설전’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 운영을 놓고 박성중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왼쪽)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비대면 활동에 데이터 사용 증가...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 국민의힘 '고통 겪는 국민 먼저 돕자 해놓고 이낙연 포퓰리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추진을 두고 여야가 10일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원에 ‘이낙연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당혹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는 “비대면 활동 증가에 따라 데이터 통신량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크게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이 커졌다”며 합당하지 않음 지적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폰트” 지적에 대해 “1인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고통을 더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했다가 반대로 통신비 2만원을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달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한다”며 “폰트 2만원을 전 국민 배급하자며 숫대가 흔들렸다. 완전 도돌이표”라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정부가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을 이르면 다음 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료 2만원씩을 한 차례 지원하기로 했다.

당 2만원이지만 아이가 모두 중학생 이상이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8만원이 된다”며 “실제 집행하면 국민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리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면 회의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액 의료가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하다”며

지원 대상은 4640만명에, 총액은 약 93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다음 달 부과되는 이달치 요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는 최대한 추석(9월 30일) 전 지원한다는 정부의 추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주경안 의원의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주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중복 지원이나 예산 누수가 없도록 법인명의의 휴대전화나 다회선 가입자에 대한 정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 방법으로는 일단 통신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2만원씩 먼저 감면해준 뒤 예산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을 정부는 검토 중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5대 분야 30대 입법과제 발표 코로나19 극복·부동산 시장 안정화 과제 등 제시

국민의힘은 코로나 19 위기 극복 등 21대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5대 분야 30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국민의힘의 30대 중점 과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 ▲경제활력 및 민생 부담 경감 ▲공정사회 실현 ▲안전안심 사회 실현 ▲미래성장 희망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구성됐다.

공정사회 실현 과제로 ‘윤미향-오거돈 방zimmer’을 추진키로 했다.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을 겨냥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과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는 경우 그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등이 포함됐다.

주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입 일반전형에서 수능으로 모집하는 인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주택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민생 과제도 제시됐다.

감염병으로 정상적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을 반환 조치하도록 한 규정을 넣은 고등교육법, 1가구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비유자의 공제를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등이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등받는 민심을 담아내고, 진심으로 민생을 살피며, 국민과 함께 중심으로 국난극복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소병철 대표발의 '여순사건특별법' 행안위 상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뒀다.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이날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 거창사건, 광주·5·18민주화운동 사건 등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 있으나 여순사건은 아직까지 특별법 조차 없다”며 “16·18·19·20대 국회에서 매년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통과가 안되고 있어, 전라남·북과 서부 경남 등에서는 이번 법안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또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2년이 지나 많은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고, 희생자와 유족들이 돌아가 시거나 생존자는 8~90대로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하다”면서 “법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전라남·북과 서부 경남지역 주민들의 피해한 한을 풀어주시고 미래로 나아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은 김승남·김희재·서동용·주철현 의원 등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공동으로 제안하고, 유가족대표, 시민단체, 교수·향토사학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담고 있다.



‘추미애 공방’에 빠진 가을 정기국회

여 “수사 지켜봐야” 공세 차단...야, 문 대통령에 해임 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올해 가을 정기국회를 뒤흔들며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야권의 무차별적인 의혹 폭격으로 당장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등 여권이 단숨에 수세에 몰린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 아래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삼가야 한다고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이른바 ‘추미애 리스크’가 비상사국과 국난극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취를 고민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온다.

야권은 10일도 추 장관을 겨냥한 공세에 피치를 올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해주는 것이 어찌에 맞는 것 같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국감이 이른바 ‘추미애 국감’이 되면서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번 의혹이 이어질 경우 임기말을 앞둔 시점에서 급속한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야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철회해달라” 김종인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호소

야권은 10일 일부 보수단체들이 이날 3일 개천절에 ‘광화문 집회’ 개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행사 철회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면 회의에서 “은 국민이 일치단결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느라, 아니면 무너져내리고 마느냐를 가능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부디 집회를 마무르고 이웃과 함께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 개최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도우미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개천절 집회를 전면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020학년도 제2학기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접수기간 2020. 08. 24(일) ~ 09. 11(금)

교육기간 2020. 09. 14(일) ~ 12. 25(금) / 15(주)

배움의 문을 두드리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 과목 | 강사명 | 요일 | 강의시간 | 공백 | 정원 | 강사명 | 비고 |
|---|-----|----|-------------|-----|----|-----|-----|
| 1. 부동산경매 실무 | 김찬수 | 목 | 19:00~21:00 | 20인 | 20 | 김찬수 | |
| 2. 외국어(중국어) 2급 자격과정 민간자격 등록번호 : 2014-4069 | 양치영 | 화 | 19:00~21:00 | 15인 | 20 | 양치영 | |
| 3. 전자·한문지도사(중급) 민간자격 등록번호 : 2008-0120 | 선영순 | 금 | 09:10~13:00 | 36인 | 15 | 선영순 | 24주 |
| 4. 기초 메이크업과 분장 | 손혜영 | 월 | 18:00~21:00 | 30인 | 20 | 손혜영 | |
| 5. 네일 창업 | 정다희 | 목 | 18:30~21:30 | 30인 | 20 | 정다희 | 영어 |
| 7. 실버요리지도사 2급 자격과정 민간자격 등록번호 : 2016-00695 | 최경희 | 월 | 18:30~20:30 | 20인 | 15 | 최경희 | |
| 8. 인문역사학 2급 자격과정 민간자격 등록번호 : 2013-1920 | | 목 | 18:30~20:30 | 20인 | 15 | | |
| 9. 데이터분석사 특수전문지도사 민간자격 등록번호 : 2019-2014 | 강태수 | 월 | 10:00~12:00 | 18인 | 20 | 강태수 | |
| 10. 미술상담사 민간자격 등록번호 : 2009-0034 | 이정화 | 화 | 18:00~21:00 | 15인 | 12 | 이정화 | |
| 11.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과정 | 민혜정 | 화 | 18:00~21:00 | 70인 | 20 | 민혜정 | |

| 과목 | 강사명 | 요일 | 강의시간 | 공백 | 정원 | 강사명 | 비고 |
|--------------------------------|-----|-------------|------|----|-----|-----|----|
| 1. 화북장식(꽃리스트) | 수 | 10:00~12:00 | 20인 | 20 | 김은주 | | |
| 2. 한국무용(호남살풀이) | 수 | 10:00~12:00 | 20인 | 20 | 백미영 | | |
| 3. 한국무용(사물놀이) | 수 | 13:00~15:00 | 20인 | 10 | 김재민 | | |
| 4. 김도오 호신술 | 화/목 | 18:00~20:00 | 20인 | 30 | 이재환 | | |
| 5. 난타 | 화 | 19:00~21:00 | 15인 | 15 | 채승래 | | |
| 6. 유채화수채화 | 월 | 09:30~12:30 | 17인 | 12 | 문영호 | | |
| 7. 쉽게 배우는 연필인물화 | 목 | 10:00~12:00 | 17인 | 12 | 박찬희 | | |
| 8. 리듬과 함께 활력 충전 '리인댄스' | 월 | 17:00~19:00 | 15인 | 20 | 이순성 | 10주 | |
| 9. 율령오가노리탈라스 | 목 | 17:00~19:00 | 15인 | 20 | 이순성 | 10주 | |
| 10. 사해(조금) | 금 | 10:00~13:00 | 17인 | 15 | 고재민 | | |
| 11. 사해(중급) | 월 | 10:00~13:00 | 17인 | 15 | 고재민 | | |
| 12. 한국전통춤(중급) | 목 | 14:00~15:30 | 15인 | 20 | 박선옥 | | |
| 13. 한국전통춤(초급) | 화 | 14:00~16:00 | 15인 | 20 | 박선옥 | | |
| 14. 여행의 재미를 더해 주는 여행 스키치 | 수 | 19:00~21:00 | 15인 | 12 | 박태영 | | |
| 15. 달빛 아래 하모니카 기초 실화 | 수 | 18:30~20:30 | 15인 | 15 | 김재철 | | |
| 16. 율령 발문스 기법 채색화 | 금 | 10:00~12:00 | 17인 | 10 | 박찬희 | | |
| 17.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하는 신나는 드림 수강신청 | 월 | 10:00~12:00 | 17인 | 15 | 김태영 | 8주 | |
| *물두멍을 휘두르세요 | 목 | 19:00~20:30 | 10인 | 15 | 정하나 | 영어 | |
| *마르티네(사상대법) | 금 | 14:00~15:30 | 10인 | 15 | 정하나 | 영어 | |
| 19. *마크필라 | 화 | 14:00~16:00 | 20인 | 20 | 박태영 | | |
| 20. *장구-가요연습 | 목 | 19:00~21:00 | 15인 | 15 | 채승래 | | |

직업능력 교육과정

문화예술 교육과정

“문대통령 기소” 백악관 청원, 21세기판 이완용

송영길 “매국 넘어 노예군성”

포·기소하라’는 청원이 올라 가장 많은 85만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원은 자신을 ‘대국국민명의회 김일선 교수’라고 소개했다.

송 의원은 이를 두고 “청원 사유의 황당함은 제쳐두고, 엄연히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미국의 대통령에게 구속시켜 달라고 읍소하는 작태에 황망하기 이를 데가 없다”며 “이 정도면 매국(賣國)을 넘어 노예군성이라 부를 만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에서는 ‘미국에 중국 바이러스를 밀수해 퍼뜨리고 한미 안보를 위협하는 문재인을 체

국민의힘 대변인인 김예령 전 기자 발탁

국민의힘은 10일 김예령 전 경기방송 기자와 윤희서 부대변인을 각각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김예령 신임 대변인은 경기방송 재직 시절인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 기초를 바꾸지 않는 자는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고 말했고, 그 질문은 문 대통령의 ‘근자감’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회자되며 여론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연합뉴스